

2강

- 두 여신이 움푹운 생명의 꽃과 뿌리, <할망본풀이>

두 여신이 움푹한 생명의 꽃과 뿌리, <할망본풀이>

이현정(제주대학교 강사)

<할망본풀이>는 일반신본풀이 중에서도 개성이 유다르다. 보통 일반신본풀이는 육지부에서 전승되는 서사물—본풀이(무속신화) 또는 민담, 서사민요 등—과 틀거리를 공유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할망본풀이>의 이본(異本)이나 동계 서사물이 한반도 내 타지역에서 전승된다는 학술적 보고는 지금까지 없다. 이는 <할망본풀이>가 여타 일반신본풀이에 비해, 토착 신앙·신화체계를 토대로 삼았으며, 나름의 독자성·변별성을 간직하고 있을 여지가 크다는 사실을 시사한다.¹⁾

온전한 한편의 <할망본풀이>는 명진국따님아기와 동해요왕말젓딸아기의 경쟁·좌정담을 담아낸다.²⁾ 본풀이는 두 여신이 생불신 직능을 두고 경합을 벌여 승패를 가르기까지 사건들을 그린다. 그러니 경합의 결과, 즉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느냐?’가 꽤 중요한 사안처럼 보인다. 하지만 눈여겨 보아야 할 정황은 따로 있다. 두 여신의 출자 내력에서 추정할 수 있는 ‘선후(先後)’의 의미와 이들이 이루는 공존의 상징성이다.

미리 결과를 언급하자면 해당 본풀이에서 패한 존재는 동해요왕말젓딸아기이고 승리한 존재는 명진국따님아기다. 두 여신 중 먼저 생불할망으로 들어섰던 이는 동해요왕말젓딸아기였다. 하지만 동해요왕말젓딸아기는 문제가 많은 생불할망이었다. 포태는 줄 수 있었으나 유산과 같은 사건사고를 빈번하게 일으켰다. 더욱이 큰일은 동해요왕말젓딸아기가 아이를 해산시키는

1) 육지부 무속에서 전승되는 산육신, ‘삼신(産神)’의 내력은 대개 <제석본풀이>와 관련이 깊다. <제석본풀이>는 ‘제석굿’, ‘세존굿’, ‘생굿’ 등의 무의(巫儀)에서 연창되는 생산신 또는 수복신의 본풀이로서, 여주인공의 명칭을 따서 <당금애기>, <서장아기>, <제석님네 따님아기>라는 이칭으로도 불린다. 이 본풀이는 스님과의 접촉으로 아이를 잉태하여, 아들 삼형제를 낳은 여주인공이 부신(夫神)을 찾아가 아들들과 함께 신직을 부여받다는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아들 삼형제는 제석신(帝釋神)으로 여주인공이자 어머니인 당금애기는 삼신으로 좌정하였다고 전한다. (서대석, 『무가 문학의 세계』, 집문당, 2011, 185쪽.) <제석본풀이>의 전승 범위는 우리나라 전역인데, 유독 제주도만은 삼신을 위하는 별도의 본풀이인 <할망본풀이>가 전하며 <제석본풀이>는 무조신(巫祖神)의 내력을 푸는 <초공본풀이>와 서사를 공유한다.

2) 이 글에서 <명진국할마님본풀이>, <동이용궁할마님본풀이>는 <할망본풀이>의 축소·분리판, <마누라본풀이>는 <할망본풀이>의 별도 확장판으로 간주한다.

방법을 몰랐다는 점이다. 덕분에 인세(人世)가 엉망이 되자, 이 문제를 수습하려 뒤늦게 오게 된 이가 명진국따님아기였다. 명진국따님아기는 동해요왕말젓딸아기가 생불할망으로서 해내지 못했던 일들을 수행하고 질서를 바로 잡는다. 이 같은 두 여신의 자질은 꽃 피우고 가꾸기 경합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결국 생불할망의 자리는 명진국따님아기에게 돌아가고 동해요왕말젓딸아기는 저승할망(구할망)으로 들어선다. 이때부터 15세 이전 인간들에 한하여 명진국따님아기는 ‘생(生)’을, 동해요왕말젓딸아기는 ‘병(病)과 사(死)’를 관장하게 된다.

경합의 결과는 아주 앞선 대목부터 예측이 가능하다. 동해요왕말젓딸아기는 어렸을 적부터 싹수가 노랬다. 부모에게 불효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다 무쇠석함에 갇혀 버려졌던 여신이 바로 동해요왕말젓딸아기이다.¹⁾ 그럼에도 이 여신을 단순히 ‘악독한 루저’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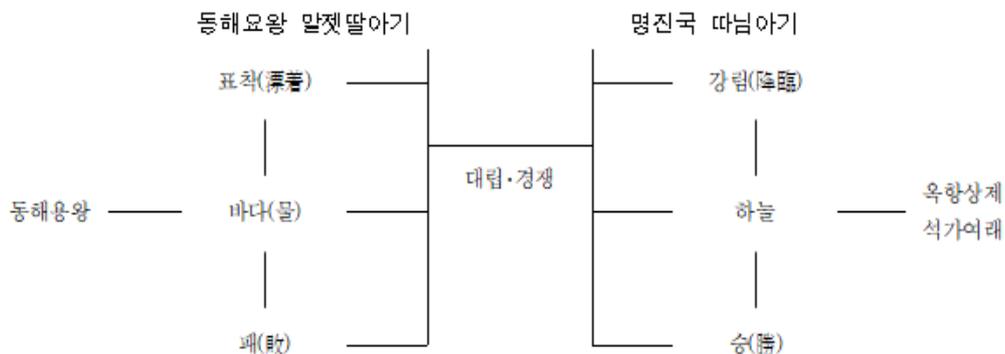
동해요왕말젓딸아기의 내력에는 제주도 당신본풀이의 화소와 토착적 산육신앙(당신앙)이 응축되어 있다. 제주도 무속신앙 체계에서 일반신신앙이 보편성을 띠는다면, 상대적으로 당신앙은 토착적이고 독자적인 성격을 띤다. 당신앙은 크게 본향당신앙, 생업수호당신앙, 산육신앙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산육신앙을 대표하는 것이 일렛당 신앙이다. 일렛당은 일렛당신이 좌정한 당이다. ‘일렛’은 당의 제일이 매 7일(초일렛[7], 열일렛[17], 스무일렛[27])이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일렛당신은 여신이며 아이가 15세가 될 때까지 보살피는 산육신이자 피부병, 안질(眼疾), 복통, 경증, 경세 등에도 효험을 보이는 치병신으로 간주된다.

일렛당 신앙은 지역(신앙권)에 따라 여러 계열로 나뉘지만, 도 전역에 ‘토산 일렛당’ 계열이 가장 넓게 퍼져 있다.²⁾ 이 계열의 일렛당신은

-
- 1) 동해요왕말젓딸아기가 저지는 대표적인 악행은 ‘불효’이다. 한 살 적에는 어머님 젓가슴을 두드리고 두 살 적에는 아버지의 수업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이 같은 행위는 제주도 본풀이에서 ‘영웅성’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하지만 이밖에 동해요왕말젓딸아기가 벌이는 특별한 악행들이 주목된다. 곡식 종자들을 엉망으로 만들어 농사를 망치고 꽃을 꺾는 ‘생산 방해’ 행위는 물론이고 주변의 불목을 조장한다. 동해요왕말젓딸아기의 영웅성을 점차 부정적 자질이나 신격적 특성을 대변하는 요소들로 변용·구체화 하여 간 단서들이다.
 - 2) 토산 일렛당 신앙과 토산 으드렛당 신앙은 다르다. 소위 토산 당신앙이라 하면, ‘정의 한집’, ‘정의 본향’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뱀신을 떠올리기 쉽지만 이는 토산 으드렛당 신앙이다. 토산 일렛당은 ‘토산 옷당’이라 하고, 토산 으드렛당은 ‘토산 알당’이라 하여 구분한다. ‘토산 옷당’은 <아기놀림>이라는 의례로, ‘토산 알당’은 내력과 관련하여 <방울친(혹은 방울푼)>이라는 의례가 아직도 고향에서 전승된다. 단 공동체 의례로서의 토산당굿은 여러 해 전에 중단되었고, 토산당신을 신앙하는 사자 집굿이나 굿을 의뢰한 본주(本主)가 토산과 얽힌 내력을 지녔을 경우 연행된다. 이 가운데 토산 일렛당 신앙과 관계된 <아기놀림>은 아이를 어르고 달래는 육아 습속이 매우 사실적으로 극화(劇化)한 의례이다.

‘용왕녀(동해요왕말젯딸아기)’ 로서,¹⁾ 송당 계보의 남성신과 결연하였다가 식성 갈등으로 살림을 분산하고 일렛당신으로 좌정한다. <할망본풀이>가 기자·산육신의 내력담이란 사실을 감안한다면, <할망본풀이> 속 동해요왕말젯딸아기와 일렛당신 계열인 동해요왕말젯딸아기의 유사성과 이 같은 속성을 띤 여신의 패배라는 결과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신화에서 신들의 갈등과 경쟁, 승패의 결과는 신앙공동체가 공감하고 인정하는 신적 영향력, 신격의 신성성이나 권위의 상관 관계를 대변하는 장치이다. 그래서 뒤늦게 등장한 여신이 먼저 신직을 수행하던 여신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할망본풀이>의 맥락은 어떻게 <할망본풀이>가 형성될 수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커다란 실마리이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나 두 여신의 출자 내력은 상당히 중요한데, 양자가 아주 대조적이다. 이런 대치 상황에서 토착신앙과 유입신앙의 갈등과 전복 과정을 훑아볼 수 있다. 아래에 두 여신의 출자 내력을 간략하게 표로 제시한다.



동해요왕말젯딸아기는 동해용왕의 딸이니 수신(水神)·여해신(女海神)의

아기를 품에 안아 재우고, 아기를 등에 업고 달래며, 음식 먹이기, 목욕시키기 등 일련의 육아 행위가 그대로 재현된다. <아기놀림>의 비념에는 ‘일곱아기 단마실청’ 혹은 ‘아기 나청’의 내력을 중심으로 잃어버렸던 아기로부터 인간에게 내려지는 홍험(물비리, 당비리 등의 피부병과 안질)을 피하고자 하는 불양(祓禳)의 기원이 포함되어 있다.

- 1) 용왕녀는 큰 범주에서 신격의 출자가 용왕, 즉 바다와 관련한 여신이다. 이러한 출자 내력을 가진 여신은 달리 잠수(해녀), 어부 등의 생업과 안전을 보살피는 해신으로 좌정하는 경우도 있다. 동해요왕말젯딸아기는 이 같은 용왕녀 계열의 여신 가운데 하나이다. 한편 일렛당신의 일대기는 경우에 따라 결연을 맺는 남성신의 계보나 신격이 달라지기도 하고, 결연 없이 추방을 당하여 인세에 내려온 신격으로 설정되기도 한다. 계열에 따라 ‘용왕녀’와 전혀 상관없는 내력을 전승하기도 한다.

속성을 지닌다. 이 여신의 출자담은 당신본풀이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기아(버려진 아이) 화소, 표착 화소를 포함한다. 동시에 토착적 산육신앙(일렛당 신앙)과의 상관성을 가늠할 수 있다. 반면 명진국따님아기는 이와 매우 상이한 출자 내력을 갖는다. 고난과 시련 따위는 겪지 않고 노각성주 부줄을 통해 하늘에서 강림한다. 보통 옥황명진대왕(혹은 명전대왕)의 딸로 나타나지만 구연본에 따라, 석가여래와 석가모니의 딸이라든가 석가대왕과 석가산의 딸로 묘사되는 경우도 있다. 천신(天神)과 불신(佛神)의 속성을 복합적으로 지닌 신격인 셈이다.¹⁾

실제로 제주도 무속에서 토산 일렛당신 계열의 본풀이나 의례(〈아기놀림〉)에는 육아 생활 따위의 민간 습속이 비교적 생생하게 담겨 있다. 〈할망본풀이〉를 포함한 삼승할망(삼신)관련 신앙과 의례는 그보다 신화적·상징적인데다 뒤늦게 유입되었을 천신신앙, 불교신앙으로 강하게 뭉쳐진 모습을 보인다.²⁾ 삼승할망을 위한 맞이굿인 〈불도맞이〉는 〈옥황천신불도연맞이〉라 불린다. 이때 심방은 송낙을 쓰고 〈수룩침〉이라는 의례를 연행하는데,³⁾ 특별하게 바랑이라는 무구를 사용한다. 바랑은 불교의 바다가 무구로 변형된 것이다. 심방은 바랑을 치며 담불이라는 무가를 부르는데, 담불은 ‘나무아미담불아’라는 후렴구로 인하여 붙여진 곡명(曲名)이다. 심방에 따라 〈수룩침〉 제차에서 천수경을 구송하는 경우도 있다.

신앙 체계의 재편 과정 가운데 천신을 최상위신으로 관념하고 하위에 지신(地神), 산신(山神), 해신을 두는 양상은 매우 보편적인 것이다. 제주도 무속에도 신들의 위계를 설정해 놓은 ‘젯드리’라는 것이 있다. 젯드리에서 지고(至高)의 존재는 천신으로 비정되는 옥황상제다. 그 뒤 상위신들은 땅, 산, 바다를 관장하는 신들, 불교적 성격을 띠는 절 차지 신들(서산대사, 육관대사), 멩진국할망(삼승할망) 순이다. 멩진국할망에 이르러서야 본풀이

1) 명진국따님아기를 달리 삼승할망, 명진국할망, 생불할망, 불도할망, 공씨방씨서씨여리(여래)할마님이라고도 부르는데, 생불과 불도는 ‘불’, ‘도(또)’ 등의 음상적 유사성 때문에 생불또(生-불또)가 불도(佛道)로 의미 전화(轉化)된 것이라 추정하는 실정이다. 공씨방씨서씨여리할마님은 공중에 떠서 방방곡곡 다니며 포대를 주고 부처를 섬기는 할마님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신명이다.

2) 인간 삼승할망의 존재는 별도로 확장하여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인간 삼승할망은 조산무(助産巫)이자 치병무(治病巫)인데, 심방과는 별개의 유형에 속한다. 삼승할망의 직능, 일렛당신의 직능을 모두 갖춘 특별한 화신(化身)이라 볼 수도 있다. 상세하게 다루려면 논의가 번잡해지니 상세한 언급은 하지 않는다.

3) 제주도 무속에서 삼승할망을 가시적으로 재현한 기메를 ‘할망송낙’이라 부른다. 이 외에 송낙류(고깔류)에 해당하는 기메는 북두칠원성군을 의미하는 ‘칠성송낙’이 있다. 양자 모두 불교 신앙과 깊은 관련이 있는 신격들이다.

(〈할망본풀이〉)와 독립의례(〈불도맞이〉)가 온전히 짝을 맞추어 전승된다. 명진국할망은 이 같은 존재들 가운데 셋도리 상 가장 높은 위계의 신인 것이다.

특히나 〈할망본풀이〉는 새로운 직능과 좌정처 차지를 위한 경합이 아닌, 기존 신직을 두고 출자가 우세한 신격이 이미 존재하는 신격을 밀어내는 신직 교체의 과정을 다룬다. 때문에 본풀이나 의례의 형성과 변화는 극명하게 신격 간의 우위를 벌이는 쪽, 우세한 신격의 신성성을 드높이는 쪽으로 거듭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무속에서 모시는 신격에 유(學)·불(佛)적 속성, 윤리적·도덕적 속성을 덧입히는 과정은 신앙공동체의 의도적 윤색이다. 이데올로기의 변화에 발맞추어 신격의 신성성을 드높이던 자연스러운 방식이었다. 동해요왕따님아기의 악행과 명진국따님아기의 출자 내력 모두는 이 같은 공동 작업의 결과물이다.

〈할망본풀이〉에 등장하는 두 여신이 산육을 담당하면서도 모신(母神)의 면모를 띠지 않는 대신, ‘영웅성’이 대폭 강조되어 있는 원인이나 명진국따님아기의 출자 내력이 다소 혼란스럽게 나타나는 정황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또한 이는 두 여신의 갈등, 곧 토착 신앙과 유입 신앙의 충돌과 재편이 신앙공동체에 얼마나 중대하고 참여한 것이었는가를 암시한다.

〈할망본풀이〉는 토착적 산육신이 외래의 산육신에게 밀려나는 과정을 문학적으로 형상화 한 신앙적 산물이다.¹⁾ 신격의 교체와 변화는 응당 신앙 체계 전반의 재편 과정으로 확장되기 마련이니, 이런 움직임 속에서 제주도 산육신앙 체계도 서서히 재정립되었을 것이다. 구할망 줄기에 피부병, 경풍 등을 불러주는 할마님을 포함시키는 사례,²⁾ 삼승할망이 마마를 포함하여 안질, 피부병 등도 낫게 해준다는 믿음이 투영된 사례 등을 근거로 삼을 수 있다.³⁾

〈할망본풀이〉를 위시하여 이 같은 과정들이 관련 신앙 체계 전반에서

1) 이와 관련한 논의는 강정식, 「할망본풀이의 전승양상」, 경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학술세미나 발표문, 2003, 17-32쪽; 김현선, 「〈삼승할망본풀이〉의 여신투쟁이 지니는 신화적 의미」, 『민속학연구』 17, 국립민속박물관, 2005, 179-208쪽; 이현정, 「제주도 서사무가 〈할망본풀이〉의 형성원리 연구: 〈할망본풀이〉와 〈일렛당본풀이〉의 영향관계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등에서 다루어졌다.

2) “구할망 줄기로 강비리, 물비리, 흥허멀, 너벅지, 경풍, 정세, 불어주는, 할마님까지, 불도연마지로, 재이르자.” 현용준 엮음, 『풍속무음(축사문) 下』,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4, 201쪽.

3) “할마님에서 상가매 증가매 하가매 불도막기 운동 허여근 머리 등창 활염도 벗고, 눈에 안질, 입에 가매, 목에 7른징 화선 장염징 다 풀려근 주는 범입네다.” 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 열두본풀이자료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194쪽.

확인된다는 사실은 꽤 행운인 듯하다. 토착적인 당신앙이 패배하고 새롭게 유입된 신앙이 일반신앙으로서 우위를 선점한 결과를 두고 행운이라 하는 것이 아니다. <할망본풀이>가 유래없는 독자적인 산육신 신화로 거듭날 수 있었던 본질, 곧 신앙공동체의 심성사적 가치와 그 구현 방식을 <할망본풀이>가 제대로 간직하고 있기에 행운이라는 뜻이다.

<할망본풀이>에서 본풀이 형성의 본질과 심성사적 가치, 이 둘을 동시에 잘 보여주는 사례는 ‘꽃 피우기 경합’이다. 사실 두 여신의 승패는 ‘정상적인 해산’을 유도할 수 있는 능력에서 벌써 판가름 나버린다. 동해요왕말젯딸아기가 포태를 주었지만 해산시키지 못한 임박사의 아내를 명진국따님아기가 해산시키는 사건은 ‘꽃 피우기 경합’보다 먼저 배치되어 있다. 생불신으로서의 결정적인 자질뿐만 아니라 출생 내력면에서도 이미 명진국따님아기는 동해요왕말젯딸아기를 월등히 앞섰다. 굳이 경합 없이도 갈등을 종결할 수 있었던 셈이다.¹⁾ 그런데 어째서 두 여신은 ‘꽃 피우기 경합’을 벌인 뒤에야 승패를 판가름 낼 수 있었던 것일까.

‘꽃 피우기 경합’의 방점은 승패보다 두 여신이 움푹운 ‘꽃나무의 모습’에 있다. 두 여신이 씨앗을 움푹워 자라게 한 꽃나무의 모습은 서로 다르되 균형을 이룬다. 명진국따님아기가 움푹운 꽃나무는 ‘외뿌리에 많은 가지를 지녔고 무수한 꽃이 핀 나무’였고, 동해요왕말젯딸아이의 것은 ‘외가지에 달린 한 송이 꽃이지만 그 뿌리는 수없이 뻗어 있는 나무’였다.²⁾

두 여신이 움푹운 꽃나무의 상징성은 실로 다채롭다. 꽃과 가지는 땅 위에 뿌리는 땅 속에 있으니 삶과 죽음, 이승과 저승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꽃은 신화적으로 생명과 결실을 상징하니 명진국따님아기가 이를 무수히 움푹웠다는 설정은, 그녀가 막강한 생산 권능을 소유한 신격이자 무수한 인간의 번성(다산)을 이끌 수 있는 존재임을 의미하는 또 다른 표현이다. 한편 동해요왕말젯딸아기의 꽃나무는 무수한 꽃을 움푹우지 못한 대신

1) 강정식은 동해요왕아기씨와 명진국아기씨는 본래 생불꽃이 없어도 포태를 주는 능력을 지닌 존재이며, 굳이 꽃으로부터 인간의 생명이 발아한다는 신화적 사유를 덧입히지 않아도 무리가 없으므로 「할망본풀이」의 형성에 있어 ‘꽃 피우기’ 경쟁 삽화를 가장 차후에 삽입된 것으로 보는 입장을 취하였다. 강정식, 위의 논문, 29-31쪽.

2) 이본에 따라 동해요왕말젯딸아기의 꽃이 검누울꽃(시든 꽃)이나 벌레 먹은 꽃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시든 꽃이나 벌레 먹은 꽃의 등장은 저승할망이 아이들에게 질병이나 흉험을 주는 존재임을 감안하면 전연 이질적인 설정은 아니다. 하지만 대개 명진국따님아기는 온갖 주화들이 핀 사만오천 육백 가지를 외뿌리가 지탱하는 꽃나무를, 동해요왕말젯딸아기는 한 송이 꽃이 핀 외가지를 사만오천 육백 줄기의 뿌리가 지탱하는 꽃나무를 움푹우는 것으로 묘사된다.

그만큼의 무수한 뿌리를 내렸다. 상식적으로 수많은 꽃과 가지를 지탱하려면 뿌리 역시 그에 걸맞을 만큼 견고해야만 한다. 탄생(삶)의 엄숙함과 귀중함은 그와 대칭적 방향성을 가진 뿌리(죽음)에서 비롯된다. 뿌리가 없다면 꽃과 가지도 없다. 제대로 된 뿌리를 갖추지 못했다면 꽃과 가지는 영글 수 없다. 이처럼 탄생과 성장, 죽음과 질병은 사실 생고(生苦), 병고(病苦), 사고(死苦)의 연장선 속에서 공존하기도 대치하는 것이다. 이들은 돌이면서 하나다.

뿌리는 꽃이 움틀 수 있도록 영양분을 흡수하여 가지로 올려 보낸다. 꽃이 피는 밑천을 뿌리가 만드는 셈인데, 이렇게 본다면 동해요왕말젯딸아기(구할망)의 근간이 토착적인 일렛당신앙이고 이를 발판으로 명진국따님아기(삼승할망)이 굳건하게 자리할 수 있었다는 상징성을 띤다고 이해할 수도 있겠다. 나아가 꽃과 뿌리의 수적·방향적 균형을 삼신신앙(유입신앙)과 일렛당신앙(토착신앙)이 따로 또 함께, 산육 신앙 체계를 지탱하는 양면과도 유사하다고 보아도 좋겠다. 민간에서 육아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앙민들의 해결 절차 또한 이런 체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자리 하나를 두고 피할 수 없는 경합이 벌어졌다. 승패는 결정되었지만 패자는 거세되지 않았다. 삶과 죽음, 꽃과 뿌리의 양면에서 아이들을 관장하는 산육신으로 분리·통합되어 아이 목숨의 전반을 주관한다. 어느 한 쪽만으로는 온전한 신화적 질서가 이루어질 수 없고, 인간 삶의 현상을 해명할 수 없게 된다. 맞서서 버티는 관계로 시작하였다가 다시 조화와 상보의 상생 관계가 되었다. 이처럼 ‘꽃 피우기 경합’에는 단순하게 승패를 가리는 수단만이 아니라, 상생과 공존의 길을 모색해 온 신앙공동체의 신화적 논리, 방법론적 미학이 내재되었다는 사실을 읽어내는 일이 중요하다.

이것이 <할망본풀이>의 문학적·역사적·민속적 가치이자 미감의 핵이다. 신화적 자산이라별게 아니다. <할망본풀이>에서 주인공, 곧 경합의 승자는 명진국따님아기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 본풀이와 관련 신앙 체계를 더욱 값지고 풍부하게 만든 주역은 명진국따님아기와 동해요왕말젯딸아기 모두라 할 만하다. 길항 속에서도 진정한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지혜가 무엇인가를 <할망본풀이>는 우리에게 전하는 동시에 묻고 있는 셈이다.

